

『아빠 아버지』

찬 양 찬양 2곡

신앙고백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찬 송 429장 -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대표기도 정해진 순서에 따라 기도

말 씬 갈라디아서 4:1-7

갈라디아서 4:1-7 (NKRIV)

- 1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 2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 3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 노릇 하였더니
- 4 때가 차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 5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 6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 7 그러므로 네가 이 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오늘의 키포인트 - 초등학문에 매어 살지 말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믿으며 기도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갑시다.

말씀 나누기

지난 수요일(9월11일)은 세계 자살 예방의 날 이었습니다. 세계적으로는 하루 평균 11명이 자살로 생을 마감 하는데 한국은 25~30명으로 자살률 세계 1위입니다. 그런데 2024년 통계에 따르면 그 수가 39.5명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경제적 문제와 가정생활 문제로 인한 외로움과 두려움이 자살의 가장 큰 원인이었습니다. 자살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주변사람들과의 관계를 끊고 가족간의 소통도 하지 않게 됩니다. 점점 두려움과 외로움이 깊어지면서 무기력증, 의욕상실, 집중력 저하와 같은 우울증의 증상이 심해 집니다.

의학박사 제닝스는 그의 책 “뇌”에서 인간의 뇌는 크게 2가지 회로가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는 사랑의 회로, 다른 하나는 두려움의 회로입니다. 건물에 화재가 발생하면 화재 경보기가 작동하듯 사람에게 위험한 상황이나 깜짝 놀랄 사건이 발생하면 두려움의 회로가 작동합니다. 풀밭을 지나가는데 발 밑에 기다랗고 미끈한 것이 밟힙니다. 순간 뱀이라고 인식하게 되고 뇌에서는 두려움의 경보가 울리기 시작합니다. 내장의 피가 근육으로 몰리고 최대한 빨리 도망갑니다. 그 자리에서 벗어나 확인해보니 그것은 뱀이 아니라 고무 호스였습니다. 그러면 다시 마음이 안정되고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갑니다. 사랑의 회로가 작동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두려움의 회로와 사랑의 회로가 제때 적절하게 작동해야 균형잡힌 삶, 건강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운 분, 무서운 분으로만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왜곡된 신앙생활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나를 사랑하시고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알 때 우리는 건강한 신앙생활,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는 곳은 AD50년, 갈라디아입니다. 갈라디아는 로마의 속주로 정치와 법률, 문화가 로마식으로 운영되던 곳입니다. 로마시대 상속법에 따르면 아들이 자연스럽게 부모의 재산을 상속받은 것이 아닙니다. 부모는 노예들 중에서 학식있고 지혜로운 자를 택하여 가정교사로 세우고 가족의 기풍과 문화, 학문 등 필

요한 것을 가르칩니다. 성인이 될 때까지 이 과정을 거친 사람이 정당한 상속자가 되어 유업을 이을 수 있었습니다. 유산을 상속받기까지의 과정은 매우 엄격하고 까다로웠습니다. 바울은 이 과정을 ‘세상의 초등학문’(3절)이라고 했습니다. 유업을 이을자가 초등학문을 마치고 성인이 되면 가정교사는 더 이상 필요가 없습니다. 자기의 역할을 다 했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 교회에는 두 부류의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이방인 출신의 성도들과 유대인 출신의 성도들입니다. 이방인 출신의 성도들에게 초등학문은 “철학과 헛된 속임수”(골2:8)였습니다. 반면 유대인 출신의 성도들에게 초등학문은 “율법과 할례”(갈4:5)였습니다. 약속의 자손으로 상속자가 되기까지는 초등교사에게서 초등학문을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 만으로는 안됩니다.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에 자기 아들 예수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4절) 이 아들을 통해서 초등학문 아래 있던 우리는 속량되었습니다. 노예였던 우리, 종과 같던 우리를 값으로 사시고(속량), “아들의 특권”(5절)을 주셨습니다. 이것을 보증하기 위해서 “아들의 영”(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6절). 이 영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한국어, 영어, 독일어, 프랑스어... 세계의 많은 언어들을 살펴보면 아빠, 엄마를 가리키는 단어의 발음이 매우 비슷합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을 향해 “아빠 아버지”(막14:36)라고 부르며 기도 하였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도 아들의 영(그리스도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약속을 이어받은 사람들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유업을 이을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것처럼 하나님을 향해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며 기도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더 이상 종이 아니고 이방인이 아니고 유대인이 아닙니다.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인간관계의 문제가 있거나 질병의 문제가 있거나 경제적인 문제, 자녀의 문제가 있더라도 좌절하거나 우울해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염려하며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임을 믿으며 내 삶을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실 것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가정과 직장 and 사업장에서 믿음을 선포하며 기도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적용 - 삶 나누기

1. 최근 내 삶에서 사랑의 회로와 두려움의 회로 중 어떤 것이 더 많이 작동하는지 말해봅시다.
2. 지금 나에게 있는 초등학문은 무엇인지, 그것을 어떻게 버릴 수 있는지 이야기해봅시다.
3.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며 기도할 제목이 무엇인지 나누고 구역식구들과 기도해 봅시다.

중보기도

1. 하나님과 동행하며 말씀으로 신앙의 깊이가 더해가는 한 해가 되게 하소서
2. 교회의 모든 부서와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결실을 보게 하소서
3. 교회 안에 성령 충만의 역사와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 되게 하소서
4. 질병으로 고통받는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유 받는 은혜가 임하게 하소서